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푸드마켓' 개장

도내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제주시 일도2동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 1층에 2억2500만원(국비 1억8000만원, 도비 4500만원)을 들여 132㎡ 규모의 매장을 마련해 6월 17일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개장,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물품을 이용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공간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일방적으로 나눠주기만 하던 푸드뱅크보다 한단계 진화한 서비스 형태이다.

푸드마켓에는 쌀, 라면, 양념류, 식재료, 육류, 기타 생필품 등이 갖춰져 있으며, 월 1회 5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권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면 이용자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제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쌀·라면 등 생필품 갖춰...수급자 월 1회 5가지 품목 무료로 이용

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해 푸드뱅크와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으며, 읍·면·동에서 추천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6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권자 1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해 3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푸드마켓 운영에 도움을 줄 기업 및 시민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다.

금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랑나눔 푸드마켓(758-1377),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702-3783~4)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과 후원을 유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도내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아카데미 7월 교육 안내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 교육

일시: 7월 15일
09:00~13:00 (1회차)
14:00~18:00 (2회차)

내용: 사회복지활동인증관리시스템운영능력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화관 삼다수홀

예비사회복지종사자 행정실무교육

일시: 7월 16일 14:00~17:00
내용: 문서관리, 재무회계 이해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화관 삼다수홀

지면소개

■ 종합 2·3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시설 탐방·제주도문화가정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학생의 날 행사·소식마당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개소 4주년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4회 제주시사회복지지역대회

‘앞선 미래의 삶’

열정과 땀흘린 노력... 최상의 서비스와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유원펌프카

★ 52M 장비보유 ★

대표 원 석 철

Tel, 755-7733
Fax, 755-7719
Mobile, 017-691-8031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전문위원

Tel, 726-5786 Fax, 702-338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부양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

지난해 7월 '제5의 사회보험'을 모토로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족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인구 5% 혜택

5월 현재 장기요양보험인정자는 25만

9456명으로, 지난해 7월 14만6643명보다 77.7% 증가했다. 노인인구(519만명)의 5%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증가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노인인구의 5.59%인 29만명 수준까지 대상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 1~3급에서 등급 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총 35만명(노인인구의 6.53%)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가시설 갑절 증가

5월 현재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1만583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시설은 2016

곳, 재가시설은 1만3015곳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 증가했다. 특히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은 서울

됐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는 월평균 72만원을 지출했으나 서비스 이용 후에는 평균 34만원을 지출해 평균 38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관리 강화

복지부는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는 '지정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등에 치매 케어를 추가하는 등 교과과정을 보강하고,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본인부담금을 50% 낮추기로 했다.

노인 26만명 혜택... '요양환경 좋아졌다' 8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서 '지정제'로

을 제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지역별 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부양부담 경감

한국갤럽이 지난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2%가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한 반면 '나 빠졌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9.8%는 '요양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91.7%는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

재산담보로 생계비 1천만원 융자

제주시는 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지점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받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구원 전체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기준으로 2억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희망자가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소득·재산조사 등을 제주시에 요청하게 되며, 제주시는 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자를 선별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담보설정 등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시 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조로 면제받고 개인은 공과금 등 실비만 부담한다.

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주택 전세보증금, 상

가 임대보증금 등이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분할 지급된다. 1인가구는 49만원(21개월), 2인가구 83만원(12개월), 3인가구 108만원(9개월), 4인가구 132만원(7개월)이다. 다만 교육비와 의료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 부담은 3%이며 나머지 4%는 정부가 부담한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장애등록 오류자 일제정비

서귀포시는 오는 3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복지DB) 자료상 전체 등록장애인 9221명을 대상으로 장애등록 오류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잦은 전·출입과 주·부장애등록, 사망 등의 많은 변동사유로 인한 장애등록의 오류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애인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수당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적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소득보장지원,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생활편의증진 등의 사업에 50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60,000	1,000,000
난치병환아후원	150,000	0
자원봉사후원	1,120,000	1,120,000
복지사업후원	1,560,000	428,4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25 당시 음식은 어떤 맛일까?

제주시교육청 주최, 제주시학교급

식연구회 주관으로 6월 20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열린 6·25 음식체험 무료 시식회 및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주먹밥과 보리개떡, 찜김자 등 6·25 당시 병사들과 피난민들이 먹던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월소득 258만원 이하 가정 100%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5단계로 나눠 지원하던 무상보육료를 이달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51만원 이하의 가정에 보육료 100%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소득인정액 258만원까지 보육료 10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2만2300명의 37%인 8400여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월 소득인정액 339만원 이하 가정은 60%를, 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정은 3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8월까지만 행정시를 통해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I-사랑카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카드를 발급,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제주시 일도2동 '이주여성 한글교실' 수료식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동장 양석하)는 6월 30일 '이주여성 한글교실' 수료식을 갖고 다문화가족인 이주여성 24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한글교실은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설 다문화센터에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 한글교실은 한국어 진단검사를 거쳐 초급반과 중급반 2개반으로 확대해 오는



1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다문화센터는 점차 교육의 수준을 높여 교육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탐방

(20)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낮선 제주생활 든든한 버팀목

한국어교육 · 다문화강사파견 등 프로그램 다채... “회원 자립 목표”

제주다문화가정센터(회장 오명찬 · 이하 센터)는 2008년 3월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외국인 아내를 둔 남편들이 힘을 모아 문을 열었다. 결혼이민자인 아내들이 낯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남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비를 모아 2007년 10월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외국인 아내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 문화적 ·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힘을 합쳐 다문화가정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산하에 센터를 설립했다.

조선희씨는 3년여 전에 오 회장과 결혼한 김정림 팀장은 “센터의 운영비는 남편들의 회비로 마련되고, 사무실 운영은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찾아오는 회원이 많으며, 서로의 얘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했다.

제주시 도남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센터는 회원들의 자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소통을 위해 매일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기초 및 중 · 고급과정과 자격증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어려움이나 출입국 문제, 법률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으로 컴퓨터교육(기초과정, 워드활용, 포토샵, 일러스트 등), 천연비누 만들기, 이 · 미용 강좌, 비즈공예, 사진과 영상미디어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활동, 정착 지원활동,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및 단체행사에 참여해 다문화 음식 및 공연을 통한 홍보,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위해 체육대회, 문화체험, 가족캠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강사파견’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학력, 자격증 소지자 등이 많은데, 이들을 활용해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전통복장 등)와 언어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집 4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소문을 듣고 예약이 들어오는 등 호응을 얻고 있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센터에서 운영한 미용강좌를 통해 실력은 쌓은 회원들이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이 · 미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진교육을 받은 회원 20여명이 ‘다문화사진연구회’를 결성해 회원의 결혼, 돌, 가족사진 등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오 회장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감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900여명의 회원을 위해 센터는 주말에도 문을 연다.

문의=727-2114. <조순옥 명예기자>

서귀포시, 자활 인큐베이터사업 실시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재운)에서 6개월간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을 시행한다.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으나 취업정보와 직업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미숙한 신생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한다는 의미의 인큐베이터에서 창안된 이번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가 처음으로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취업에 장애가 되는 가정문제 해결, 위축된 심리상태 극복 등 취업 적응과정 거쳐 저소득 가정이 취업·창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서귀포시는 10명을 선발해 월 6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참여자 개인의 적성에 따라 미용기술, 조리사 자격증 취득의 직업교육과 인성훈련, 가정문제 상담 등의 자립 지원서비스를 6개월동안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료 후에는 개인 취업이나 창업, 자활사업단 참여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노인일자리사업 2428개 제공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계획했던 23억400만원 외에 추가로 16억2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358개의 일자리에 추가로 1070개의 일자리가 생겨 모두 2428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일자리에는 군특회계 예산으로 추진돼 증가폭이 미미했으나 올해 국비

7억9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보다 92.3% 증가한 39억28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의 공공분야 일자리와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민간분야 일자리로 나뉘는데, 환경정비와 주차질서 등 공익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시니어 길동무, 1·3세대통합프로그램 운영, 은빛인형극단, 학교급식도우미 등 12개의 사업을 신규로 발굴, 제공하기도 했다.

장애아동 대상재활치료전문 ‘파란나라’ 개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6월 4일 서귀포지역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재활치료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귀포 중심가(옛 기업은행)에 재활치료전문 사회서비스센터 ‘파란나라’를 개소했다. 서귀포지역에서 복합적인 치료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센터는 ‘파란나라’가 처음이다.

서귀포지역 등록장애인 8700여명 중 치료교육 대상자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300여명(통계측정이 불가능한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비장애아동 미포함)에 이르는 데 ‘파란나라’가 문을 열어써 이동거리 및 접근성의 한계로 치료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아동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녀의 치료교육에 대해 전문상담을 원하는 부모들의 접근성도 높아짐에 따라 치료교육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파란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10회 제공된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행동상 문제가 의심되는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6회 제공된다. 비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의사와 담임교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치료형태는 인지행동 · 심리 · 미술 · 독서 · 놀이 · 심리운동치료 등으로 이뤄지고, 개별치료(재활치료바우처만 해당), 소그룹치료, 중그룹치료로 진행된다. 치료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중 종합적인 진단 · 판정 · 평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며,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 심리재활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편견의 벽 허무는 아름다운 무대

제15회 제주장애학생의 날 행사 학생문화원서 열려 장애·비장애학생 어우러진 축제한마당 '갈채'

제15회 제주장애학생의 날 행사가 6월 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이 행사는 장애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개성 있는 나, 조화로운 우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축제한마당,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작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를 비롯해 모범학생 표창, 특수교육 공로자 감사패 수여, 기념품 전달 등이 이뤄졌다.

이어 식후행사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가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난타' '아썸! 빙고 빙고' '쏘리 쏘리 울동' '신나는 북장단' '얼썬 우리가락 한마당' '슈퍼맨의 댄스' '영송시대와 스포츠댄스' '아주 먼 옛날에는' 등의 축제한마당이 진행돼 참가자와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시간을 가졌다. 완벽한 몸짓이나 손놀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공연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한 장애학생 어머니는 "한달여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졌고 자신감도 없었



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고 지시 없이도 자신의 역할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출품한 그리기를 비롯해 글짓

기, 공예작품 등 300여점이 전시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장애학생의 날 축제 한마당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의 편견의 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자연치유 음식강좌 교육 실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다음달 17일까지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자연치유 음식강좌' 2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연치유 음식강좌'는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건강기능성 음식을 보급해 제주음식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연치유 음식강좌'는 서귀포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소/식/마/당

제일지역아동센터 제일한마음캠프 실시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5월 22~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제일한마음캠프'를 실시했다.

어린이 야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에서는 야간보호아동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감수성 훈련,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신뢰회복과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창암재활원 죽성제재소나들이



창암재활원은 6월 13일 '정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신나는 목공활동사업' 일환으로 죽성제재소 나들이를 실시했다.

목공활동은 중증장애아동에게 목공공구를 이용해 목공활동이 위험하지 않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과 냄새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화북초, 도교육청 연구지원협력단 컨설팅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6월 1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교육청 연구지원 협력단 컨설팅을 받았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학교현황, 학교특색사업과 학교 현안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아라초등학교 오수선 교감이 화북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국가지원사업이다.

송죽원 가고 또 가고 싶은 여행 진행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6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보고 또 보고, 가고 또 가고 싶은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 장애인과 지도교사 등 참가자 45명은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6·25 전쟁체험전시관과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봤다.

송죽원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그룹과 여행지를 상담을 통해 선정, 매년 2회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제주복지관 이루다사업단 동아리축제 '성황'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루다사업단은 6월 13일 해녀박물관 운동장에서 구좌읍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동아리축제를 개최했다.

이루다사업단 동아리 회원들의 합창·밴드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문을 연 이후 지역아동센터별 축구 경기와 직장인 밴드 '언폴드'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축구 경기에 나서지 못한 아동들은 미니올림픽과 장기자랑, OX 퀴즈 등에 참여했다.

이루다사업단이 운영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여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구좌읍 지역아동센터들과 함께 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



써 지역자원 통합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이루다사업단은 평가했다.

한편 이루다사업단은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도내·도외 리더십캠프, 지역사회 문화창출과 자아효능감 향상을 위한 문화동아리,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습서비스 및 학교상담, 자기성장을 위한 전문 집단상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 등을 위한 부모특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차 제주러브하우스 착공...8월 완공 예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와 대우조선해양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재영·이하 DSC),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6월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조순가구를 위해 제1차 제주러브하우스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축하는 제1차 제주러브하우스는 52.89㎡(16평형)의 판넬하우스 1동으로, 할머니와 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설계됐다. 8월 초 완공 예정이다.



제1차 제주러브하우스 사업비 5000만원은 JDC와 DSC가 각각 2500만원씩 기탁했다.

이번 사업은 JDC와 DSC가 소의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편 제2차 제주러브하우스는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개소 4주년

6월 23일 기념식... 동아리공연 등 행사 다채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은영)가 개소 4주년을 맞았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6월 23일 서귀포시 민회관에서 개소 4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우수봉사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자원봉사 결의문 채택, 자원봉사 소양교육(강사 윤선·행복 Sensation 대표), 우수사례발표, 동아리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김만선씨(중문동)와 양동훈씨(남원읍 신례리) 가족, 표선면 세화1리 부녀회가 각각 수상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도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 5월 17일 개소한 이래 국내외 문화체육행사 등의 봉사활동은 물론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개소 초기 35개 단체 960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2009년 6월 현재 355개 단체 1만



3489명으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소 초기 분야별 구분 없이 단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사회복지 ▲교통질서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능 ▲재난재해 ▲의료 ▲외국어 통역 ▲범죄예방 선도 등 9개 분야로 구분해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봉사자 배치, 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사업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현경애 명예기자>

아동발달지도사 양성·파견사업 실시

서귀장복, 치료교육 희망 장애아동에서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도내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 활용을 통해 치료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에 게 적시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동발달지도사 양성·파견사업'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교육 또는 사회복지 등 관련학과 재학생,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장애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 이를 이수한 인력을 활용, 치료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공백기간을 없애고 즉각적인 치료교육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아동발달지도사 양성·파견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내 장애전담 어린이집,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심리협회,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도사는 치료교사 및 특수교사의 고유업무인 치료 및 교육, 아동지도, 평가, 상담 등을 함께 보조해 장애아동의 개인육구지원, 치료 및 수업 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지원, 개별 아동들의 특성에 따른 활동 지원, 한국심리협회의 발달진단평가사 3급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내에 치료교육이 필요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론 및 실습, 임상사례연구, 아동 개별 및 그룹지도 등의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급과정은 이달 개강하며, 중급 및 고급과정은 7월과 8월에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문의=732-2352~4.

천사의집 '작은 알프스' 꿈나무예술제 금상

천사의집 '작은 알프스' 요들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배 2009 꿈나무예술제'에 제주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차지했다.



꿈나무예술제는 매년 전국 아동양육시설 시·도 대표팀이 출전해 경연을 펼치는 장으로 올해는 5월 23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돔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2003년 창단한 '작은 알프스'는 창단 초기 지역에 요들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지도교사 1명이 서울을 오가며 요들을 배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인터넷 요들강습을 통해 요들을 익히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김홍철과 친구들' 멤버인 방운식씨를 통해 인천 알핀로제 어린이요들단 캠프에 참가

해 요들과 악기를 익혔고, 지난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작은 알프스' 요들캠프를 열어 방씨가 제주에 와서 지도해 주고 있다.

'작은 알프스'는 그동안 아름다운가게 1주년 행사, 꿈틀도서관 개관, 최남단 방어축제, 제주오름학교 10주년 기념행사, 신원재단 8주년 기념행사, 제1회 전국복지포럼 등 도내 여러 행사에 참여해 요들송과 악기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창단 당시 3명이었던 단원은 현재 15명으로 늘었다.



삼도1동 클린하우스화단 조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제주시 삼도1동 클린하우스 주변 소규모 화단조성사업을 실시해 삼도1동 관내 클린하우스에 8개의 화단을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삼도1동주민센터 및 삼도1동주민자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해 온 소규모 화단조성사업은 1차로 14개를 설치했으며, 2차로 8개를 지난달 설치 완료했다.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 한몫

소규모 화단은 일배움터 녹색원예사업단이 주축이 돼 조성됐으며, 앞으로 화훼관리 등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 화단을 관리하게 된다.

일배움터는 소규모 화단조성사업이 집 앞 쓰레기 배출 및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도심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녹색원예사업단은 조경사업, 정원관리, 화훼관리, 원예식물 재배 등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착한가게에 동참하세요”

제주사랑의열매 홍보활동 펼쳐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6월 16일 제주시 주요상가에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해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내 중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홍보활동은 나눔 문화를 정착·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것이다.

박찬식 회장은 “나눔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만 있다면

그 무엇을 나누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는 총 30곳으로, 매월 320여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우리나라 대표 판화가인 이철수씨의 작품으로 만든 현판이 제공되며,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올해 말까지 참여업체 100곳을 목표로 캠페인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뒷세오름 등반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등산교실'의 일환으로 6월 13일 농협중앙회 서광로지점(지점장이미숙) 직원과 함께 뒷세오름을 다녀왔다.

유진재활센터는 “이번에는 한라산 뒷세오름을 등반했



데,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는 행사가 됐다”면서 많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칼럼

희망 나누기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장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벌어진다. 자본주의 병폐이다. 이를 보완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자는 소수 특수계층에 대한 인간적 삶의 본질적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의 발현이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 무자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계·주거비가 지급된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감안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과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에 참여케 하여 탈수급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전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사업실패, 가정해체, 사회부적응, 알코올 중독 등 심신이 파괴되어 심연에 허우적대는 사회적 패배자들 말이다. 험난한 인생사에 찌든 어둠속의 하층민들, 부랑인과 노숙자가 그들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실제 노숙인과 노숙이 우려되는 사람이 40여명이 있으나 가변적이다. 소수인 것 같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는 그리 녹록치 않다. 이들은 일반수급자나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과는 다른 복지수요자들이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밤이 되면 오일시장이나 공원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잔다. 식사는 하루 한번 무료 급식으로 해결한다. 일일노동이라도 해서 몇 푼이 생기면 어김없이 음주를 한다. 이들은 무질서한 생활과 결식, 과음으로 인해 수시

로 병원으로 후송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측은지심에 시린 마음 가누기 어렵다.

방황하는 노숙인에 희망을

이들을 관리하는 희망나눔상담센터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 5명의 직원들이 이들의 소재를 항상 파악, 동태를 관리한다. 순찰 중 만취되어 거리에 쓰러진 부랑인이나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를 센터로 데려와 선도보호조치 한다. 지적(知的)상태를 참작하여 시설에 입소시키는데, 시설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여 뛰쳐나오는 일이 다반사이다.

육지부에서 무작정 내도하여 방황하는 자는 잘 타일러 여객선을 태워 귀향시킨다. 귀가 여비로 돈 만원을 쥐어주면서,

이들은 만화책을 보거나 오름 트래킹을 하는 시간만이 만취상태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들의 사고에 내일이란 없다. 이들은 자유분방하며 타락된 낭만주의자들이다. 절망의 어둠속에 방황하는 이들의 희망 나눔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적 보장의 범주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치유하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 그들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일은 어쩌면 영원한 사회적 숙제인지도 모른다.

시론

변화를 위한 용기

얼마 전 목에 이상이 생겨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담당 의사는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목을 보호하라고 하였다. 두 가지 주의사항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나 차보다는 차가운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처방받은 약을 위안삼아 돌아왔지만, 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에 내 목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기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내 모습, 내 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즉, 오랜 습성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게 된다.

자신 돌보는 능력이 사회변화의 동력

변화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익숙한 것들에게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선 왜?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작은 시도조차 어려울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시원한 청량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따뜻한 차를 내어 마시는 것은 내 목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였다. 이삼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자부했는데, 내 목은 돌아와 주지 않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음이 실망스러웠고, 더위에 약해 땀을 흘리며 목을 보호하겠다고 따뜻한 차를 내어 마신 내가 미련해 보였다. 그 이후 다시 시원한 청량음료와 얼음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답답했던 목이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이 상쾌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목이 붓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을 지 전혀 몰랐다. 이상 징후 없이 편안하게 몸에서 받아들이는 듯해 보였지만, 사실은 내 몸을 더욱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랜 습성에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쥐고 있는 열쇠로 자신의 문을 열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모색할 차례이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시도하는 방법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실패한 어떠한 시도도 고리를 끊기 위한 변화의 하나라는 것이다. 실패는 다른 대안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유심히 관찰하여 긍정적인 보상을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부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믿어보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기고

정혁이의 이야기 4(직업훈련)



김 선 옥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전화가 왔다. '정혁이가 대학에 입학할 하면 어떻겠느냐'는 전화였다. 나는 선생님께 거절을 했다. 정혁이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면 발달장애인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말은 들겠지만 그건 부모의 허영심일 뿐 아이를 위해서는 결코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졸업을 앞두고 춘강에 문의를 하여 직업훈련을 신청했다. 아무것도 쉬운 게 없는 아이였는데, 직업훈련 역시 쉬울리가 없었다.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단체생활의 규칙을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학교에서는 정혁이가 수업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 출석만 하면 그냥 내버렸는데 직업훈련은 다르다.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껏 행동을 했는데 점차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정혁이가 가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직접 현장에 실습을 나가 보니 일을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양이다.

두 번의 실습을 마치고 한라산업의 실습은 세 번째다. 자기가 나갔던 실습 중에는 제일 잘해낼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어렵게 취업이 되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적응을 잘해서 직장을 유지하는 게 문제이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회사의 배려와 춘강 직업훈련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금은 제법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이다. 지금까지 정혁이의 삶을 적어 보았다.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걷다가 정혁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볼 때면 항상 그들이 부럽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 아들도 저렇게 건장하고 잘 자라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 그래도 지금 정혁이가 장애를 딛고 일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대견하기도 하다.

그리고 정혁이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나의 선택이 옳았음에 후회가 없다. 능력이 더 좋은 엄마를 만났다면 정혁이는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정혁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어떤 장애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장애이다. 세상이 그 아이들을 다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해선 안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 힘든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의 엄마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한다면 조금도 나을 것 같지 않은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경험을 말하고 싶다.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권해본다.

■ 2009 제4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

“협의체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고경윤)는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종사자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제4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남진열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09 제4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에서 남진열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남진열 교수 ‘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 발제 협의체 사무국·전담인력 우선 확보돼야

남진열 교수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시 지역 사회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기관간 연계협력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 등 비효율을 줄이고 관계기관간 네트워크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내용 중복에 대한 조사에서 262명 중 48.1%인 126명이 ‘중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81명(30.9%)은 ‘보통’, 55명(21.0%)은 ‘대체로 중복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적 차원의 중복 수준 역시 121명(46.2%)이 ‘중복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3명(31.7%), ‘중복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8명(22.1%)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공공·민간기관 종사자, 협의체 참여 위원 및 비위원 등 모든 응답자가 ‘중복되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는다’는 인식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비스 중복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의 정비도 주문했다.

남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민간부문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강조되지 않음에 따라 민(民)과 관(官)의 관계가 수평적보다는 수직적인 경향이 강하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민간단체들만의 의사가 대 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민 연계협력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 262명의 74%가, 민-민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7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민-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 ▲지역 내 자원조사를 통한 잠재 자원의 발굴과 활용 ▲다양한 영역과 분야별 대표성의 확보 ▲민주적이고 자율적 운영 보장 ▲참여 여부 자율성 보장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하는 주체간 연계협력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공기관간’, 민간기관 종사자는 ‘민간복지기관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관 연계협력체계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주체적 확보, 민간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 등을 남 교수는 요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결하고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국과 전담인력(상근간사)가 확보돼야 하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민간영역에서도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특히 “제주시의 경우 행정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민-민 연계협력기구 구성 등 네트워크 정비 서비스 중복 제공...다양한 욕구 대응 못해

나 종속성의 청산, 민간기관간 불필요한 경쟁·갈등·의식 지양,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지역운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들었다.

남 교수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역설했다.

그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 협력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이행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32.7%, ‘대체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13.1%가 응답해 역할 이행수준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

근거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4년마다 시·도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주의 경우 2006년 말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만 존재할 뿐 제주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제주시가 2006년 7월부터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되면서 시의회가 없어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시에도 자치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제주시 사회복지 지역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남진열 교수의 주제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prethinking

인쇄? *One-Stop System*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별거 아닌것 같으면서도 참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로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기획을 해야 하는데 자료도 변변치 않고 조연자도 없고...
기획, 디자인, 출력, 제판, 인쇄...,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선진인쇄사에서는 One-Stop System으로
고객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 규 진

선진인쇄사 • 도서출판열림문화

전화 : 064)757-4437, 755-4856 • 팩스 : 064)721-4855